

민원에 대한 회신문

1. 귀하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민원사항 (2014. 11. 26. 접수번호 [REDACTED]-[REDACTED]-[REDACTED])과 관련하여 회신 드립니다.

2. 강성준님 안녕하십니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 기관은 위 폭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귀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폭행 사건 관련 진정한 주장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폭행 사건에 대해 귀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특히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 가해자의 직위해제 및 징계 / 사건을 방조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다른 교도관에 대한 조사 및 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공개사과 등을 포함하여 귀 기관이 취한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폭행 사건에 대해 귀 기관이 앞으로 취할 예정인 조치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금번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사건은 2014.11.6. 09:15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팀장 최 모 교감이 수용자간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1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때린 사건으로 우리기관 고충처리반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기관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인권관련 직무교육을 해왔으며, 모든 직원들은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해당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번 사건에 대한 우리기관의 조치로는 첫 번째, 고충처리반에서 조사후 2014.11.14.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 직원은 해당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현재 검찰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현재 다른 교도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일 귀하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적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인권관련 직무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이 발생한바, 이에 전 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기관은 수용자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한편, 우리 기관은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인권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5. 끝으로 강성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인터넷에 게재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게재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구치소장